

## Nosocomial malaria transmit by contaminated blood

좋은삼선병원 내과

김재휘, 윤늘봄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속 원충(삼일열, 열대열, 사일열, 난형열, 원숭이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질환입니다. 주로 얼룩날개모기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가 인체의 혈액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전파됩니다. 보통 사람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으나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폐암 말기환자로 본원 추적 관찰 중이던 분이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였다. 호흡곤란 유발 할 수 있는 폐렴, 흉수, 폐부종, 심부전의 증거는 없었다. 입원하여 산소 공급 등 supportive care 통해 호흡곤란 증상의 호전 있었으나 입원 7일째 38도 이상의 발열 있었다. 발열시 오한 있었습니다. 기침, 가래 등 호흡기 관련 증상 없었고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관련 증상도 없었습니다. 고체온이 지속하지는 않으나 2-3일 주기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Leukocytosis 없었고 CRP 경미한 증가 있었다. 욕창 등의 피부 병변도 없었다. 발열 병소 찾기 위해 검사 진행 하였으나 명확한 발열의 원인 찾을 수 없었다. 발열 지속하여 병원 내 발생 폐렴 추정하여 경험적 항생제 Piperacillin/tazobactam, Levofloxacin 사용하였다. 항생제 사용 7일 후에도 발열 지속하여 불명열 추정 후 evalutaion 하였고 말라리아 진단 kit 양성 소견있어 말초혈액도말 진행하였고 말초초혈액도말에서 Ring-form의 적혈구 발견되어 말라리아로 확진되었다. 원충의 종류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증상경미하고 열대지방 방문력 없어 국내 발생 삼일열 말라리아로 추정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치료 시작하였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 후 발열, 오한 등 증상 호전되었고 1일 1회 말초혈액도말검사 시행하여 원충혈농도 감소 확인 되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 3일간 치료 후 프리마퀸 14일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환자 외국 방문력 없었고 국내 위험지역 방문력 없었다. 병원내 감염 확인 위해 조사 중 환자 응급실 내원 당시 옆 환자 CPCR 상황이었고 혈액, 체액이 튀는 상황이었다. CPCR 후 타병원 전원했는데 말라리아 진단되었고 본원에 보고되어 말라리아 감염 환자의 체액에 의한 전파로 추정하였다.

